新春隨想

봄, '침묵 여행' 떠나자



승한 스님
서울 낙산 금산사 주지

내게 침묵 여행은 자기 연금술
그 여정은 나를 새로 담금질한다

긴 침묵의 여행을 하는 동안에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명상하며
삶을 정리하며 자신을 마주한다

봄날 훌쩍 떠날 침묵 여행길에서
존재만으로 행복할 '나를' 만난다

공연히 마음 뒤숭숭한 춘수(春愁)의 봄이다. 생명의 명멸에 상관없이 이런 봄날엔 아무렇게나 문득 자지러지고 싶다. 그래서 그럴까. 나의 봄은 또 몸이 마르는 춘수(春瘦)의 봄이기도 하다. 봄만 되면 나는 까닭 없이 오목가슴이 보대끼고 푸른 봄바람 속에 더욱 파리하게 몸이 말라간다.

해마다 봄이면 찾아오는 나의 이 춘수(春愁)와 춘수(春瘦)의 정체는 무엇일까? 해보지 못한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살아보지 못한 삶 때문일까? 대책 없는 이 생의 충동 앞에서 나는 긴 침묵에 들어간다. 그리고 지난겨울의 침묵 여행을 생각하며 혼자만의 또 다른 침묵 여행을 준비한다. 삶에 침묵이 필요할 때 여행은 최고의 양식이 된다.

지난 겨울, 나는 강원도 양양 낙산사로 침묵 여행을 다녀왔다. 침묵의 겨울 날 그곳에 갈 때마다 먼 수평선에서 불어오는 시린 해풍은 나의 정신성을 매섭게 다져준다. 해마다 겨울이면 내가 양양 낙산사를 찾는 것은 또 어느 겨울 바닷가보다도 푸르면서도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물어뜯을 듯이 달려드는 파도의 역동성이 정신성의 고양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끊임없이 밀려드는 푸른 물결과 바닷바람이 날카롭게 얼어붙은 심장의 정신성을 더욱 다져주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나에게 있어서 침묵 여행은 자기 연금술이다. 백전백패한 삶에 지쳤을 때 침묵 여행은 죽어있는 내 삶의 정신성을 새로 담금질해준다. 들길을 걷고 바닷가를 걸으면서 마음과 침묵의 긴 대화를 나누다보면 내 마음도 어느덧 들판과 바다로 연금되고, 그럴 때마다 지리멸렬한 내 삶의 들판도 희망의 씨앗을 배아한다.

그런 까닭에 여행은 또 나에게 있어서 내 안의 철학으로의 초대이기도 하다. 가슴을 횡단하는 내 존재 의미에 대한 탐색과 성찰로의 초대이기도 하다. 침묵의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명상하며 내 삶의 원초적 조건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의 공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명상을 통해 나는 그 동안 돈과 명예와 욕구와 사회적 겉치레와 권력과 애욕과 분노에 가려 보이지 않던 내 젊은 날의 삶의 원초적 조건들과 이젠 웃으며 조우할 수 있다.

침묵 여행은 또 내 삶에 휴식과 각성이라는 보너스를 준다. 그리하여 내 정신의 오랜 기갈에 단물을 흠뻑 적셔준다. 짧지만 달콤한 그 휴식과 각성은 내 삶의 작은 교두보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백전백패하고 지리멸렬한 삶일지라도 침묵 여행을 통해 나는 휴식과 정신의 각성제를 흡입하고 또 다시 험난한 인생 절벽을 타고 오를 사다리를 준비한다.

공연히 마음 뒤숭숭하고 몸이 말라가는 춘수(春愁)와 춘수(春瘦)의 이 봄날, 내가 은밀히 또 하나의 침묵 여행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느 봄날 훌쩍 떠날 혼자만의 이 침묵 여행길에서 나는 우선 매화꽃을 만날 것이다. 다음엔 동백꽃을 만나고 산수유 꽃을 만나고 목련꽃과 벚꽃과 배꽃도 만날 것이다. 그리하여 매화꽃을 만나면 매화꽃으로 연금되고, 동백꽃과 산수유 꽃을 만나면 동백꽃과 산수유 꽃으로 연금되고, 벚꽃과 배꽃을 만나면 벚꽃과 배꽃으로 담금질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봄, 나를 공연히 뒤숭숭하게 하고 마르게 했던 내 삶의 원초적 춘수(春愁)와 춘수(春瘦)들과 다시금 미소지우며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이대로 존재하는 존재감만으로도 행복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대로 OK'인 '무한 나'를 만날 것이다.

社說

비구니 대사회 역량 세계로 뻗길

전 세계 12개국 비구니스님들의 연합체인 세계불교비구니협회가 공식 첫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회 주제 또한 '남북통일'로 정해져 유일 분단국가인 한반도 평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로 확정된 만큼 이에 앞서 열리는 비구니스님들의 평화대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남북 화해무드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처럼 눈길을 끄는 비구니스님들의 대사회활동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다. 사회복지를 비롯해 인재양성, 불교문화 등 다양한 분야서 밑바탕부터 내실을 다지며 활동해온 씨앗이 싹튼 것이다. 이미 비구니스님들은 국내 불교복지 중 호스피스·노인복지 등 곳곳에서 선도하는 데다 불교통역과 사찰음식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비구니스님들의 대사회활동은 비구스님들과 달리 오래 전부터 자격에서 암묵적인 제한을 받았다. 부처님이 설한 비구니 팔경계로 인해 마치 비구니가 비구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되는 풍토가 불교계 저변에 깔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비구니에게 더 많은 계를 설했을 뿐 비구와 비구니 존재의 가치에서 차이를 두진 않았다. 결국 왜곡된 경전 해석이 비구니스님들의 대사회활동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비구니스님들은 굴하지 않고 사회에 법향을 전했다. 그 법향이 점차 사회를 맑히면서 비구니스님들의 대사회 역량도 인정받게 됐다. 이제는 비구니스님들의 역량이 국내뿐만 아닌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

뉴미디어 포교 '소통'이 키워드

1980년대 뉴미디어는 'TV' 등이었으며, 1990년대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2010년대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었다. 매 시기마다 이른바 '뉴미디어'는 존재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최근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뉴미디어의 의미는 '소통' '상호영향'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뉴미디어 시대의 불교포교에 대하 종단 안팎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청년층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뉴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해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론을 따지기에 앞서 2018년 뉴미디어 포교의 키워드가 '소통'란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이 각광받는 이유는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공급자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이다. 소통을 골자로 한 미디어 활용이 바로 뉴미디어다. 그렇기에 뉴미디어 불교 포교 또한 이러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한다.

수행을 점검받고, 도반끼리 신심을 높이고, 사찰의 개선점을 제안하기도 하는 이러한 상호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교계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찰을 찾는 일반 시민의 눈에서 보아야 한다. 비불자의 입장에서 불자들의 행동을 바라보아야 한다. 재가자의 입장에서 출가자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서로 허심탄회 소통하며 변화해야 한다.

조계종은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제도와 플랫폼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면에 상호 소통, 그리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별기고

세계불교비구니협회 한국지회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주최한 평화에세이 공모전서 통일상에 선정된 경주 흥륜사 한주 법념 스님의 글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여생을 금강산서 보내고 싶다



법념 스님
경주 흥륜사 한주

텔레비전에서 "고향의 봄"이 흘러나온다. 탈북해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만든 합창단의 울림이다. 얼굴이 드러나면 북에 있는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모두 다 가면을 쓰고 노래한다. 새해를 맞이해 고향에 가고픈 마음을 담아 한과 꿈이 서린 소리를 토해낸다. 분단국가의 서러움이 절절히 전해진다.

은사이신 혜해(慧海) 스님은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이다. 흥륜사에서는 우리 스님이 거처하는 요사를 법기암(法起庵)이라고 부른다. 출가본사가 금강산 신계사(神溪寺) 법기암이어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늘 그리워해 법기암이라 새겨 현관 입구에 걸어드렸다. 금강산은 아니지만 현판이라도 보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이 될 것 같아서다.

금강산이 개방되었을 때 제일 기뻐한 이는 우리 스님이셨다. 오매불망(寤寐不忘) 그리던 금강산.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허가증까지 제공받아 얼마동안은 그곳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잠깐. 몇 년 안 돼 절망으로 바뀌었다. 금강산을 계기로 통일의 물꼬가 트일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기뻐하셨건만…. 은사스님이 원하는 남북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지려나. 가슴이 쓰리다.

한국동란 때 불타 없어진 금강산 신계사의 복원불사를 할 때였다. 우리 스님은 구십이 가까운 노구를 이끌고 화주하러 나섰다. 오로지 남북통일을 위한 일념으로 1억여 원을 거둘 정도로 출가본사가 있는 금강산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지금은 신계사를 꿈에서만 다시 볼 수 있으니 그 안타까움이 오죽하겠는가. 그러기에 다른 뉴스거리엔 도통 관심이 없으면서 남북통일이나 금강산에 관한 소식만 나오면 유난히 눈을 반짝이며 귀를 열어놓고 들으신다.

이제라도 기다리던 통일이 오면 '금강산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푸념하듯 말씀하시는 은사스님의 염원은 오늘도 계속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처럼 은사스님의 발원은 오로지 남북통일이다. 사시마지를 올릴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축원은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비는 모습은 뒤에서 보기만 해도 숙연해진다. 올해 구십하고도 여덟으로 백세가 내일 모레지만 매일 빠트리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늘 새롭다.

〈중략〉

오늘도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스님도 여생을 금강산에서 보낼 수 있기를. '나무 석가모니불'이라고 염불하며 두 눈을 살포시 감고 두 손을 고이 모은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오늘따라 유난히 푸르다. 저 하늘이 이어진 북녘 땅에도 이곳처럼 하늘이 푸르리라. 동서남북이 없는 하늘이 부럽다. 아직까지는 남북이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 오갈 수 없어서다. 그 부러움이 현실이 될 그 날을 꿈꾼다.

지면 관계상 에세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현대불교 신문 홈페이지(www.hyunbulenws.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